

眞聖女王陵考

丁 仲 煥

序 言

今年初眞聖女王陵을 두고 京鄕間의 新聞紙上에 若干의 說往說來가 있어 여러가지 面에서 多少의 興味를 世人에게 던진바 있다.

지금 그 大略의 經緯를 概說하면 梁山郡의 有志인 安鍾石氏가 平素에 鄉內의 文化財에 關하여 愛護心을 가지고 이 方面에 注意하여 오던바 文獻을 상고하고 傳說을 綜合하여 梁山郡勿禁面魚谷里에 現在한 上下 雙墳을 眞聖女王陵에 比定하고 이 것을 郡公報室에 連絡하여 公報室에서 이 事實을 公表하는 동시에 道公報室에 連絡하므로써 世上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梁山郡內에 新羅王陵이 있다는 말에 世上 사람들은 若干의 好奇心을 갖게 되었는데 그 뒤에도 安鍾石氏는 一九七〇年 一月 十日과 同十七日 兩日間에 걸쳐 國際新報 文化面에 『眞聖王陵說이렇게 본다』라는 題目으로 魚谷里의 墳墓는 眞聖女王陵에 틀림 없을 것이라는 意見을 發表하였다. 筆者도 이사이 처음은 道公報室의 案內로 現地에 가 보았으나 너무 늦게 到着하여 仔細히 살펴 볼수 없이 下山하여 安鍾石氏와 저녁 食事를 같이 하며 몇가지 文獻上의 根據를 들어 否定的인 意見을 말하고 왔던 것인데 安鍾石氏의 이 論文이 新聞에 發表 됨으로 해서 現墓主인 李在雨氏의 要請으로 이번에는 慶南道 文化 財委員인 朴敬源 慶南高學校 長先生任과 研究室의 玄文子嬢과 함께 李在雨氏가 마련한 車便으로 다시 現地에 가서 비로소 자세히 살펴 볼수 있었다.

李在雨氏는 筆者더러 新聞紙上에 所見을 發表하여 줄것을 要請하였으나 筆者는 그당시 말하기를 『踏査한 結果로 말하면 曰可曰否 是非할 性質의 것이 못되는 것으로 新聞에 發表할 必要가 없다』하고 이를 拒絶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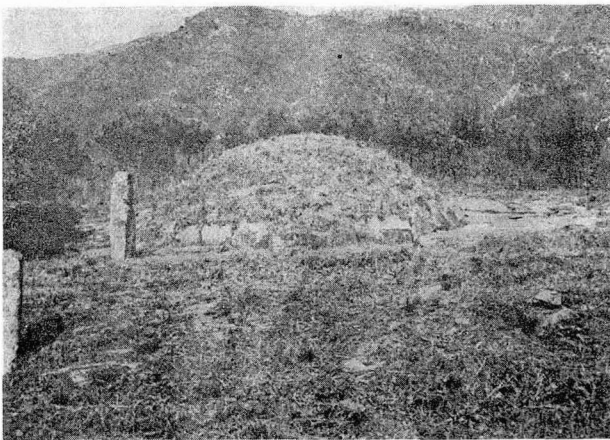


圖 2. 梁山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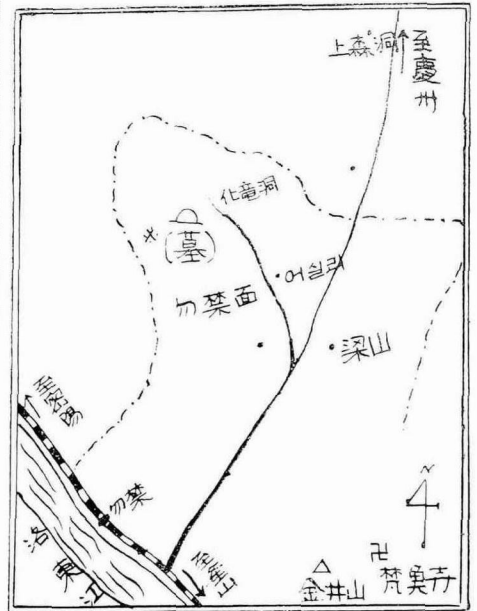


圖 1. 略圖

였더니 그 뒤 李在雨氏는 스스로 安鍾石氏의 意見을 反駁하는 論文을 써서 같은 國際新聞 一月二十九日 字 文化面에 掲載하여 이 墳墓가 自己의 先山임을 主張하고 있다.

李在雨氏의 이 論文이 發表된 뒤로 安鍾石氏는 다시 國際新報 紙上으로 別다른 發表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當時統營郡守로 있던 金朝陽氏(現在 慶尙南道咸陽郡守이며 道文化 財委員임)가 慶南每日紙上



圖 3. 石人像

에 『眞聖女王陵은 存在치 않았다』라는 論題로 여러가지 有益한 意見과 상세한 考證으로 勿禁面 魚谷里 墳墓는 眞聖王陵이 아니라는 것을 論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三月 五日字 中央日報紙上에 『傳說과 記錄으로 거듭은 眞聖女王陵』이란 題目으로 安鍾石氏의 論文이 發表되어 以前에 記事로써 報道된 바 있는 이 問題에 學術的인 根據를 附與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筆者로서는 終是 이 問題에 介入코자하는 興味를 갖지 않았던 것이다. 理由는 筆者自身이 專門的으로 다를 處地가 아님과 現場踏査를 통해서 본 學論할 必要가 없다는 생각과 安鍾石氏에 대한 個人的 親分과 그의 文化財保護의 熱意를 尊敬하는 생각에서 그의 勞力을 높이 評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에도 다른 일로 安先生을 모시고 여러번 이 問題를 直接 論議하였고 또 다른 文化財를 찾아 山野를 同行한 일이 있어 이 글을 써도 安先生께서 充分히 諒解하시기를 알고 또 恒常尊敬하는 黃壽永教授의

부탁도 있어 筆者가 생각하는 眞聖女王陵에 關한 所見의 一端을 披擲하여 보려는 것이 本論을 抄하는 動機이다.

一、大勢論上으로 본 梁山王陵說

먼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記錄된 新羅 五十六王의 陵墓를 推尋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王名	三國史記	三國遺事	備考
1 始祖	葬蛇陵、在曇嚴寺北	蛇陵、曇嚴寺北陵	
2 南解王	葬蛇陵園內		
3 儒理王	葬蛇陵園內		
4 脫解王	葬城北壤井丘	○葬疏川丘中 ○碎爲塑像安闕內 ○置於東岳	水葬末召疏井 丘中塑骨安東 岳 (遺事王曆篇)
5 婆娑王	葬蛇陵園內		
6 祇摩王			
7 逸聖王			
8 阿達羅王			
9 伐休王			
10 奈解王			
11 助賁王			
12 沾解王			
13 味解王			
14 儒禮王			
15 基臨王			
16 訖勿王			
17 奈聖王			
18 訖聖王			
19 慈祇王			
20 慈祇王			
21 炤實王			
22 智證王			
23 法興王	葬於哀公寺北峯	陵在哀公寺北	

25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孝恭王	眞聖王	定康王	憲康王	景文王	憲安王	文聖王	神武王	閔哀王	僖康王	興德王	憲德王	哀莊王	昭聖王	元聖王	宣德王	惠恭王	景德王	孝成王	聖德王	孝昭王	神文王	文武王	太宗武烈王	眞德王	善德王	眞平王	眞知王	眞興王	
葬于師子寺北	葬于黃山	葬菩提寺東南	葬菩提寺東南	葬于孔雀址	葬于孔雀址	葬于弟兄山北	葬于弟兄山西北	葬于蘇山	合葬章和王妃陵	葬于泉林寺北				燒於奉德寺南	散骨東海		葬毛祇寺西岑	散骨東海	葬移車寺南	葬于望德寺東	葬狼山東	葬東海口大石上 (大上石)	葬永敬寺北	葬沙梁部	葬于狼山	葬于漢只	葬于永敬寺北		
火葬散骨于牟梁 西□一作未黃山 火葬師子寺北藏骨于 仇知堤東山脇									陵在泉林村北 陵在安康北比火壤與 妃昌花合葬				陵在吐舍岳西洞鳩寺 (今忠靈廟寺)有崔致遠 撰碑			初葬頃只寺西岑鍊石 爲陵後移葬楊長谷中		陵在東村南一云 楊長一臺		陵在望德寺東		陵在感恩寺東海中		狼山南					
									亂中所害				亂兵所害																

56	55	54	53
敬順王	景哀王	景明王	神德王
		葬于黃福寺北	葬黃福寺北
		火葬藏骨于箴峴南 等仍山西	火葬藏骨于箴峴南
		陵在國國東向洞	頸壹令自盡 京畿道長湍

以上圖表에 依하여 王陵未詳의 王이 十九王인데 그 內容은 여러가지 境遇가 있으나 本論에 必要치 않음으로 省略하고 陵所가 記錄되어 있는 王陵의 所在地를 살펴보면 敬順王은 高麗에 自進投降하여 開京에 살다가 薨하였으므로 그 陵所도 지금 京畿道 長湍에 있거니와 그 以外的 王陵은 가장 먼 곳이 安康에 있는 興德王陵이라 하였으니 大部分의 王陵은 慶州市內 및 近郊에 散在하여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唯獨 眞聖王陵만이 慶州에서 百餘里나 相距한 梁山의 그것도 野地가 아닌 山谷의 狹小한 丘陵에 그다지 초라하게 葬禮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설사, 眞聖王이 個人的으로 그 檢束이 紊亂하여 王者로서의 體統을 損失하고 政治的으로 治理를 밝히지 못하여 國運을 衰亡의 길로 몰아넣었다 하더라도 아직 新羅의 國命이 完全히 終熄한 것도 아니고 叛亂者들이 王京을 陷沒하여 革命이 일어난 것도 아니며, 王室의 權威가 無視된 것도 아니니 眞骨出身의 登極한 王으로 비록 周圍의 壓力에 依하여 他意에 依한 讓位라고 본다 하더라도 몇몇한 節次에 依하여 禪讓한 王을 邊地에 安置할 理도 萬無하고 또 葬地를 이러한 곳에 擇하여 이와 같은 非格非禮의 陵所를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三國遺事의 記錄대로 火葬하여 未黃山에 散骨하였다면, 그것은 充分히 首肯될 수 있는 일이나 藏骨處를 梁山에 마련 하였다면 그 陵寢이 반드시 王者의 威儀를 갖추는 것이 아니겠는가.

大勢論上으로 생각할 때 眞聖女王의 陵所가 梁山에 있으리라고는到底히 納得이 가지 않는 이야기이다.

二、文獻上으로도 본 梁山王陵說

다시 文獻上으로 梁山에 眞聖王陵이 있을 수 있는 根據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다시 한번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眞聖王陵에 關한 記錄을 推尋하여 보면 三國史記에서는 『葬于黃山』이라 하였고 三國遺事에서는 『火葬、散骨于牟梁西□ 一作未黃山』이라 하였는데、西字下の 湧字를 『山』 『岳』、 『谷』 등으로 메워 생각하면 結局 眞聖女王이 薨去하며 佛敎式으로 火葬하여 그 遺骨을 牟梁里西(山·岳·谷)에 散骨하였다는 것이며、 『一作未黃山』이란 말은 두가지로 풀이할수 있는데 하나는 牟梁里西(山·岳·谷)을 或은 未黃山이라고도 하였다는 意味이고、 둘째는 西(山·岳·谷) 以外的 他處에 있는 未黃山을 생각할 수 있다. 牟梁西□이 바로 未黃山이 된다는 의미로 보면 다른 問題는 없으나 설사 未黃山을 他處로 본다 하더라도 당시의 情形으로 보아 大體로 牟梁附近 乃至 慶州附近에 있는 山名에 지나지 않을 것은 明白한 사실이다. 筆者의 見解로서는 西□를 西岳으로 보아 牟梁西岳이 바로 一名 未黃山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나 이 點은 後考로 미룬다. 왜 □을 岳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現在도 西岳書院等 西岳의 名稱이 있음에 因因한다.

三國史記에서 黃山에 葬하였다 함은 結局 이 黃山이 未黃山에서 未字가 脫落된 것으로 同一地名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三國遺事에서는 王曆篇에서나 紀異篇에서 歷代王陵에 關해서는 그다지 注意하지 않은바 이나 間間이 表示된 王陵所在地는 大體로 三國史記의 그것과 一致할 뿐 아니라 보다 詳細하게 記錄하고 있기 때문에 眞聖王陵에 있어서도 史記의 黃山은 遺事의 未黃山과 一致한다고 보아 無難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뒤에 그 經緯를 상세히 말하겠지만 三國史記에서 般子黃山이란 말을 한데서 梁山黃山에다 眞聖女王陵을 比定코자 하는 契機가 있게 된 것임을 言及하여 두는 바이다.

이와 같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眞聖女王陵을 黃山 或은 未黃山이라 한 뒤로(三國遺事에서는 散骨이라 하였음) 다른 史書나 地理書에서 寡聞의 탓인지 別로 眞聖女王陵所에 關한 記錄을 찾아 볼 수 없었다. 輿地勝覽 古跡 於谷所條에는 『在郡西五里 有小城 俗號水蛭獄 古爲所時 囚罪人之地』라 하여 梁山於谷——魚谷에는 옛적 所의 자리로 罪人을 가두는 獄(俗稱 水蛭獄)이 있었다고 하였고 王陵이 있었다는 말은 一言

半辭도 없으며 梁山郡誌(註一)에서도 眞聖王陵에 關하여 言及한 바가 없다. 安鍾石氏가 들고 있는 慶州邑誌(註二)와 慶州金氏 瞻源錄(註三)이 이제 編纂된 것인지 알수 없으며、 또 어디에 根據하여 眞聖女王陵이 梁山黃山에 있다고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러한 冊名이 朝鮮圖書解題나 古鮮冊譜等에 보이지 않고、 또 그 引用된 文面만 보아도 이러한 冊들이 最近에 編纂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사 이러한 冊들이 多少인적 編纂되었다 하더라도 三國史記의 黃山 또는 三國遺事의 未黃山을 誤認하여 梁山의 黃山驛에 附合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信憑한 價値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東京雜記(註四) 其他 信憑性있는 地誌類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結局 文獻上으로 보아도 眞聖女王陵이 梁山郡 勿禁面 黃山에 比定할 만한 아무런 根據도 發見할 수 없다. 그러므로 黃山을 늘리라 하건 누른 외라 하건 輪山이라 하건 梁山의 黃山은 어디까지나 梁山의 黃山이오 李朝때의 驛名이오 洛東江의 江名이지 眞聖女王陵所와는 何等的 關係없는 곳이오 於谷 또는 魚谷亦是 옛적 所가 있던 터요 獄이 있던 곳으로 우 리말로 『어실』이란 洞名이지 『御室』과 關聯시키고、 眞聖王陵所가 있는 곳으로 比定할 아무런 根據가 없는 곳이다.

註一、筆者所藏의 梁山郡誌는 肅宗二十四年(戊寅) 郡守 姜世輔가 編纂한 것을 百三十五年後인 純祖三十四年 頃에 郡守 李淵祥이 補修한 것을 高宗十五年 郡守 李晚燾가 再補修한 것을 一九三四年 郡人 李坤寧氏가 草寫한 것이다.

註二、安鍾石氏가 引用한 慶州邑誌文은 다음과 같다.

(卷之二·四에 보면)

『冬十二月 女王薨、諡眞聖、葬黃山』

『眞聖王陵 在黃山、今梁山郡黃山驛』

註三、亦是 安鍾石氏가 引用한 慶州金氏 瞻源錄 中の 引用文은 다음과 같다.

『眞聖王 元年戊申、在位 十年 陵在梁山郡 黃山里』

註四、東京雜記는 顯宗十年(己酉) 慶州府尹 閔周冕의 纂集한바 三冊으로 되어 慶州事蹟을 가장 詳細히 記錄함.

三、現地踏査에서 본 梁山王陵說

眞聖女王의 陵이 있다고 하는 梁山郡 勿禁面 於(魚)谷里 화룡골은 梁山邑에서 西北쪽으로 몇 料 떨어진 古蹟한 골짜기 막바지에 있다.

지금은 山頂에 通하는 道路가 美軍에 依하여 막여져 있어 轎車 정도는 갈 수 있게 되어 있으나 以前에는 겨우 골짜기 길에 있어 사람의 往來가 可能하였던 곳으로 王陵이라고 말하는 墳墓는 화룡골 溪水의 水源에 가까운 곳으로 물도 흐르지 않는 두 골짜기 사이에 자리잡은 狹小한 山줄기가 맞닿은 곳으로 뒤는 主山이라고 할 수 있는 山이 屏風처럼 둘러섰고, 左右로도 山脈이 둘러싸였으며 案山이나 朝山도 제대로 놓여 風水上 살피볼 만한 곳이라고 하겠다. 같은 眞불안에 上下 兩墳이 10m 以內의 間隔으로 있는데 封墳의 크기는 一般 民墓로서는 相當히 큰 축에 들어갈 만하여 上下墳이 다 周圍 約 10m 高約 三·四m 정도로 形狀은 포주박形이며 地勢를 따라 地脈에 連하는 後尾를 두고 있다. 砂土質이고 약간 傾斜진 곳이라 近年에 沙汰진 곳을 補修한 듯 上墳에는 편편한 自然石으로 護石처럼 左右에 둘러섰고 墓 兩側 沙汰진 곳에도 自然石을 깔아 沙汰를 막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後世에 頽落한 곳을 補修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地形이 狹小한 곳이라 眞불(墳域)은 上下墳을 합쳐도 不過 몇 10m 平方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上上墳 모두 自然石 一枚씩을 床石으로 하였을 뿐 其他의 魂遊石 등의 施設은 없다. 上墳 床石은 前後 1m, 左右 1·九〇m이고 下墳 床石은 前後 1·一〇m, 左右 1·六〇m 程度の 不整形의 돌로 무덤 앞에 놓여져 있다.

上墳 前面에는 文武石을 意味하는 像石이 左右로 各二軀씩 놓였는데 長一·一七m 程度の 같은 모양으로 다듬어진 것이고 下墳에는 女像으로 생각되는 像石이 左右로 一軀式 세워져 있다. 女像의 長은 一·五〇m 程度이다.

이것으로 우선 上墳이 男子墓이고 下墳이 女子墓임을 分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上墳의 文武石이라 하는 것도 普通보는 像石들과 같이 冠蓋服飾을 表現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花崗石材를 써서 頭部와 身部만 약간 區分하고 마치 洞口에서 불투 있었던 「장승이나, 假面의 畫像처럼 極히 稱拙하고 抽象的인 手法으로 人形을 陰刻하였을 따름이다. 下墳의 女像은 亦是 上墳의 石像과 비슷한 手法이나 上墳에 比하여 多少具象的으로 頭部服飾을 表現하고 있다. 界女像이 모두 拱手한 모양을 取하고 있는데 그 手法이 꽤 재미있게 보인다.

男像은 文武石의 意味를 包含하는 것이나 오히려 蒼頭像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 女像은 侍女 또는 婢子의 像으로 보는 것이 옳은 解釋일 지 모른다.

彫刻의 型式과 手法으로 보아 아무리 時代를 올려보아도 十六세기 以上으로 올라 갈 수 없을 것이다. 女像의 服飾等으로 보아 多少自然主義的 傳統의 遺風이 남아있는 것도 같으나 大體로 이미 抽象的 諸謔의 인色 調로 庶民의 손에 依해 아무렇게나 마련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 어찌 여기에서 新羅時代의 것은 且置하고 李朝時代의 王者나 高官의 墳墓라고도 敢히 말할 수 있으리오.

封墳이 比較的 크고 稱拙하나 石像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리고, 石像이 지닌 型式과 手法으로 보아 대개 十六세기 後半期項의 多少身分 있는 사람으로, 그러나 物力의 貧困한 사람의 墳墓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眞불과 그 周圍에서 遺物을 採集한바 李朝 粉靑砂器片 若干을 얻었음을 뿐 다른 高麗 때나 新羅 때의 遺物로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發見하지 못하였다.

以上 實地 踏査한 結果로 梁山郡 於(魚)谷里 화룡골의 上下雙墳은 大體로 十六세기 後半期項 多少身分은 있으나 物力이 貧困한 民間人의 墳墓로 王陵이나 高官大爵의 禮葬이 아님은 勿論이오 또한 오랫동안 放置되어 頽落하였던 것을 前世에 多少補修한 墓主가 있는 墳墓로 보이는바 眞聖王陵說을 여기에 附會한다는 것은 너무나 不合理한 舉論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四、梁山王陵說의 由來

이와같이 現遺蹟으로 보아 한갓 李朝 初期의 民墓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墳墓에 新羅眞聖王陵을 比定코자 한 由來를 잠간 살펴보기로 하겠다. 安鍾石氏가 提示한 慶州邑誌와 慶州金氏瞻源錄이란 冊은 연계 編纂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나 一九二六年(大正 十五年 卽 昭和 元年) 日人에 의하여 만들어진 『慶州古蹟案内』란 小冊子에는 明白히 眞聖女王陵이 慶尙南道 梁山郡 黃山에 있다고 하였다.

上舉 邑誌나 瞻源錄이나 慶州古蹟案内가 모두 그 根據를 三國史記의 『葬于黃山』이란 데 두고 있음은 明白한 일이다. 黃山을 慶州附近에 찾아 보다가 發見되지 않음에 梁山에 黃山津의 이름이 있고 李朝때 黃山驛이 있었으므로 慶州와 梁山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므로 漠然하게 三國史記의 黃山을 梁山黃山에 견준 것이 第一段의 眞聖女王陵 梁山黃山說이라 하겠다. 第一段에 있어서의 眞聖女王陵 梁山黃山說은 漠然한 黃山說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指摘하여 들 것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境遇 「黃」과 「皇」을 때로 混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景明王의 陵所를 史記에서는 葬于黃福寺北이라 한 것을 遺事에서는 『火葬皇福寺』라 하여 黃과 皇을 混同하였는데 이밖에도 音이 같은 경우 적당한 漢字를 쓰는 것이 가끔 있다. 따라서 黃山은 皇山으로도 쓸 수 있는바 黃山을 安鍾石氏의 풀이처럼 누른 외로 意譯할 것이 못된다고 본다.

第二段은 今般 安鍾石氏에 依하여 勿禁面 於(魚)谷里 化龍골의 上記한 民墓를 두고 決定的으로 眞聖王陵發見說을 내세우게 된 것이라 하겠다. 安先生은 言語上으로 또 文獻上으로 그리고 現地住民의 傳說을 종합하여 眞聖女王陵의 所在를 밝히려고 努力한 바이나 爲先 現地の 遺蹟과 遺物이 新羅時代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음에 結局 上空論式的 論證이 되고 말았음을 遺憾스럽게 생각하며 事實을 뒤가 뒤가 되어온다고 하더라도 黃山이 梁山에만 있으라는 理由도 없고 더구나 黃

山이라 하여 眞聖王陵이 꼭 있을 수도 없으니, 이 점도 再考할 바이다. 第一段에서 漠然하게나마 眞聖女王陵이 梁山黃山에 있다고 말하여 慶州에서 찾지 못한 眞聖王陵을 梁山黃山에 있을 것이라 한 것을 第二段에서 決定的으로 於(魚)谷里 化龍골에 있다고 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는 前學한 上下墳에 관한 多少의 事緣이 있는 듯도 하나 이것은 私私로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省略한다.

結 語

한 동안 眞聖女王陵이 梁山에 있다 아니다하여 新聞紙上에 若干의 物議를 일으켜 學界에서도 多少 注意한 바이다.

그러나 新羅王陵의 所在地를 全般的으로 概觀하여 볼 때 大勢論上으로 眞聖女王陵이 慶州王都에서 百里以上 相距한 梁山地方의 近속한 山谷中에 있을 수 없고 또 文獻上으로 보아도 梁山黃山說은 何等の 根據있는說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現地踏查에서 본 遺蹟이 李朝初期의 것으로 王陵을 云謂하기 以前에 新羅적 遺蹟이나 遺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發見할 수 없는 만큼 現存 於(魚)谷里 化龍골 墳墓는 李朝時代의 官職은 없으나 身分있는 사람의 民墓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新羅 眞聖王陵說은 何等の 根據없는 浪說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斷定할 수 밖에 없다.

結局 現在로서는 眞聖女王은 三國遺事의 말에 依하여 火葬하여 末黃山에 散骨한 것이라고 생각함이 가장 妥當한 解釋이 아닐가 한다.

一九七〇年 四月二十五日

金銅觀音菩薩의 一資料

——統一新羅時代 初期造像考——

松 原 三 郎